



누구도 저지 못한 'ML 올스타전 홈런더비 킹' 애런 저지 11일(한국시간) 미국 마이애미 말린스 파크에서 열린 2017 올스타전 홈런더비에서 한 여름 밤의 횡재량이 뜨거웠다. 열광적인 홈팬들의 응원을 받은 저스틴 보어(마이애미)는 1라운드에서 22개의 홈런을 쳤다. 교과서적인 스윙 폼이 아름답다. 다저스가 자랑하는 신인 코디 벨린저는 2라운드에 오르며 진가를 보여줬다. 결승전까지 진출한 미겔 사노(미네소타)의 역동적인 타격, 특히 마지막까지 뒤에 남아있는 중심, 공을 끝까지 보는 시선까지 완벽하다. 비거리 156m 초대형 홈런 쇼를 보여주며 우승을 차지한 뉴욕 양키스의 슈퍼루키 애런 저지는 여유롭게 레이스를 즐기며 난적들을 차례차례 꺾었다(왼쪽부터). 마이애미 | AP뉴시스

공격농구로 진화하는 우리은행

외곽 공격에 강한 스트리커 1라운드 지명 2라운드서 뽑은 하킨스로 골밑 약점 보강 위성우 감독 "세계농구 흐름에 맞춰 전환"

여자프로농구 정규리그-챔피언 결정전 통합 5연패에 빛나는 우리은행은 요즘 새 시즌 준비에 여념이 없다. 지난 시즌 개막 직전 이승아(25)가 돌연 팀을 떠나면서 선수기용에 차질을 빚었는데, 새 시즌을 앞두고는 양지희(33)의 은퇴로 다시 전력누수가 생겼다.

우리은행 위성우(46) 감독은 11일 "이승아가 빠진 부분은 박혜진과 이은혜가 있어서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었지만, 양지희는 다르다. 우리 팀은 양지희를 빼면 센터가 없다. 전력손실이 엄

청 크다"고 밝혔다. 게다가 외국인 센터 존쿠엘 존스(25·197cm)와의 재계약도 무산됐다. 그러나 우리은행은 10일 열린 '2017~2018 WKBL 외국인선수 선발회'에서 1라운드 5순위 포워드인 셰키나 스트리커(27·188cm)를 뽑았다. 스트리커는 외곽 공격에 강점이 있다. 따라서 우리은행의 골밑 공백은 여전히 것으로 보인다.

위기는 기회인 또 다른 이름이 될 수도 있다. 위 감독은 기존 수비농구의 틀을 깨고 공격 비중을 높이는 변화를 구상 중이다. 위 감독은 "새 시즌부터 3쿼터에는 외국인선수 2명이 동시에 뛰니까 2라운드에서 뽑은 타이냐 하킨스(190cm)가 골밑을 지켜줄 수 있다. 다른 쿼터에는 최은실과 김정은을 파워포워드로 활용하는 방안

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위 감독은 지난해 6월 프랑스 낭트에서 펼쳐진 2016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 여자농구 최종예선 당시 대표팀을 이끌면서 가드와 포워드를 활용한 외곽 농구로 재미를 봤다. 그는 "나는 수비농구를 추구하지만, 세계농구의 추세는 공격농구다. 내 농구는 통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세계농구의 흐름에 맞춰 공격에 중점을 뒀다. 준비가 부족하지 했지만, 그 때의 경험이 내게는 큰 자산이 됐다"고 자평한 뒤 "아직 배워가는 중이다. 실패해도 괜찮다. 그 때는 원래 우리가 했던 수비농구를 꺼내들면 된다. 새 시즌의 변화를 통해 나도, 선수들도 배우는 바가 있을 것"이라며 공격농구로의 변화를 예고했다.

정지욱 기자 stop@donga.com

홍익대, 전국대학야구선수권 우승

경성대와의 결승전 10-9 역전승



장재근 감독이 이끄는 홍익대 학교가 제72회 전국대학야구선수권대회 정상에 올랐다. 홍익대는 11일 강원도 횡성 베이스볼 테마파크에서 열린 경성대학교와 대회 결승전에서 10-9 역전승을 거두며 우승했다. 홍익대는 1회초 4실점하고 3회초 2점을 내주며 0-6으로 뒤져 패색이 짙었다. 그러나 3회말 최준혁이 만루홈런을

터트리는데 대거 6득점에 추격에 성공했다. 이후 두 팀은 7회말까지 7-7 동점으로 팽팽하게 맞섰다. 경성대는 8회초 2점을 올리며 다시 앞서나갔다. 홍익대는 8회말 최태성이 결승 3점홈런을 터트리며 10-9로 재역전에 성공했다. 홍익대 좌완 안도원은 4회 투입돼 6이닝 동안 4안타 2실점(1자책)하며 결승전 승리투수가 됐다. 대학야구 최약체였던 홍익대는 2011년 장재근 감독 취임 이후 맹훈련으로 2014년 처음으로 전국대회 우승을 차지하는 등 신흥 강호로 떠올랐다.

이경호 기자 rush@donga.com

대한체육회, 체육계열학교·운동부 지원

훈련비 등 학교당 최대 1억6000만원



대한체육회(이 기흥 회장)가 우수 선수를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 체육계열 학교와 학교 운동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한다. 지원 사업은 체육계열 학교와 학교 운동부 대상을 나누어 운영한다. 각각 단계 실정에 맞는 재정 및 물품지원을 통해 훈련여건을 개선하고, 경기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전국 27개 체육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는 2010년부터 지원 사업을 시작했다. 연구학교 운영비와 선수 훈련비, 훈련시설을 보완하거나 고가 장비를 구입하는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학교마다 차등을 두는데, 연구학교의 경우 교육부에서 지원 대상학교를 추천받아 선정한다. 선수훈련비 및 훈련시설 보완·고가 장비 구입비는 학생 수에 비례하여 학교당 최대 1억6000만원까지 총 16억3000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매년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체육고등학교 체육대회 개최를 지원한다. 올해 대회는 인천체육고등학교 주관으로 인천광역시에서 지난 4월에 열렸으며 서울체육고등학교가 종합 우승을 차지했다. 체육계열 학교 외에도 전국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학교 운동부를 지원하기 위해 '기초종목 육성사업'과 '학교운동부 지원사업'을 운영한다. 기초종목 육성사업은 대표적인 기초종목인 육상, 체조, 수영 종목을 대상으로, 전국 시·도 체육회에서 선정한 학교 운동부에 훈련용 장비 및 용품을 1년에 최대 20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기초종목 외에 다른 종목의 경우 고가의 현대적 훈련용 기구 및 용품을 지원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대한체육회는 체육계열 학교와 학교 운동부의 훈련 여건을 개선하고, 선수들의 특성을 고려한 과학적인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훈련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양형모 기자 ranbi@donga.com

KB손해보험배구단, 구미 떠나 의정부에 새 둠지 튼다

남자프로배구 KB손해보험배구단이 홈 코트를 바꿀 방침이다. 2005년 V리그 출범 이래 연고지로 정착했던 경북 구미를 떠나 2017~2018시즌부터 경기도 의정부로 새 본거지로 삼을 계획이다. 성적 부진과 관중 감소로 고민하던 KB손해보험은 스포츠전문컨설팅 업체에 팀 진단을 의뢰했고, 그 방편 가운데 하나로 연고지 이전을 결정했다. KB손해보험은 이에 앞서 권순찬 신임 감독 임명, 사무국장 등 프런트 교체, 김요한 등 핵심선수 트레이드 등 강도 높은 변화를 실행

했다. KB손해보험은 6월 중순부터 새 연고지를 물색했고, 총 12개 지포표를 바탕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한 의정부시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정했다. KB손해보험배구단은 이른 시일 내에 의정부 부지와 세부 협상을 조율한 뒤, 연고지 협약을 확정할 예정이다. 또 배구단을 떠나보내 허탈감을 느낄 구미 서포터즈 등 지역 팬들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 중이다. KB손해보험의 의정부 이전이 마무리되면 V리그 남자부 7개팀 중 현대캐피탈(전안), 삼

성화재(대전)를 제외한 5개팀(우리카드-서울, 대한항공-인천, 한국전력-수원, OK저축은행-안산 등)이 수도권에 자리하게 된다. KOVO 이사회 승인을 거쳐야 KB손해보험의 연고지 이전이 절차 상, 완료되지만 큰 저항은 없을 듯하다. KOVO 관계자는 11일 "프로배구 연고권이 전국으로 넓어지기를 바라지만 이미 수도권을 선점한 구미들이 KB손해보험의 연고지 이전을 거부할 명분이 희박하다"고 말했다.

김영준 기자 gatzby@donga.com

스포츠토토

야구토토 스페셜 59회차 투표율 중간집계 (11일 오전 9시 현재)						
경기번호	1경기	2경기	3경기			
홈-원정	두산 VS 넥센	SK VS LG	kt VS 삼성			
경기일시	7.12(수) 18:30	7.12(수) 18:30	7.12(수) 18:30			
순위	점수대	투표율	점수대	투표율	투표율	
1	(4~5)-(8~9)	7.63%	(2~3)-(0~1)	6.86%	(2~3)-(4~5)	4.59%
2	(0~1)-(4~5)	6.01%	(2~3)-(4~5)	6.37%	(2~3)-(6~7)	4.54%
3	(6~7)-(4~5)	5.23%	(4~5)-(6~7)	5.45%	(6~7)-(4~5)	4.53%
홈팀 승	41.25%	48.86%			37.47%	
같은 점수대	14.87%	13.13%			15.20%	
홈팀 패	43.90%	38.03%			47.34%	

* 게임방식 : 3경기 6게임(또는 2경기 4게임) 최종 스코어 맞히기 * 표기방식 : 0~1점, 2~3점, 4~5점, 6~7점, 8~9점, 10+(10점 이상) * 발매마감 : 2017. 7. 12(수) 18시 20분

축구토토 스페셜 30회차 투표율 중간집계 (11일 오전 8시 현재)						
경기번호	1경기	2경기	3경기			
홈-원정	FC서울 vs 포항스틸러스	대구FC vs 울산현대	제주유나이티드 vs 전북현대			
경기일시	7.12(수) 19:30	7.12(수) 19:30	7.12(수) 20:00			
순위	스코어	투표율	스코어	투표율	투표율	
1	1-1	14.96%	1-2	15.04%	1-2	13.55%
2	2-1	14.16%	1-1	13.55%	2-2	9.92%
3	1-2	10.80%	0-2	11.36%	1-3	9.89%
홈팀 승	41.87%		18.75%		22.30%	
무승부	30.85%		27.06%		25.29%	
홈팀 패	27.29%		54.17%		52.38%	

* 게임방식 : 2경기 4게임 및 3경기 6게임 최종 스코어 맞히기 * 표기방식 : 0, 1, 2, 3, 4, 5+(5점 이상) * 발매마감 : 2017. 7. 12(수) 19시 20분

케이토토 토토OX 24회차 발매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인 케이토토(대표 손준철)가 토토OX 24회차를 발매한다. 이번 24회차에선 13일 벌어지는 KBO리그 두산-넥센전(1경기)과 SK-LG전(2경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US여자오픈에 출전하는 렉시 톰슨의 1라운드 성적(3경기)을 대상으로 한다. 1·2경기의 5가지 이벤트로는 '홈팀 최종 승리', '홈팀이 최종 원정팀보다 홈런 수가 많음', '홈팀이 최종 원정팀보다 안타 수가 많음', '양팀 연장전 진행', '양팀 최종 총 득점합은 11점보다 많음'이 선정됐다. 3경기에선 '최종 성적은 언더 파', '최종 성적타수는 홈수', '해당 골프장의 1번 홀 파 기록', '최종 버디 기록 홈은 3개보다 많음', '최종 파 기록 홈은 10개보다 많음'이다. 13일 오후 6시20분 발매 마감된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토토/프로토) 이외 모든 유사 스포츠베팅 행위는 '불법스포츠포박'이며, 이를 이용할 시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에 의거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클린스포츠 통합콜센터 [불법신고] 1899-1119 www.cleansports.or.kr 공식발매사이트 www.betman.co.kr

SK 2~3점 - LG 0~1점 예상 7% 최다

전체 참가자 49% "SK 승리" 점쳐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인 케이토토(대표 손준철)가 12일 펼쳐지는 2017 시즌 KBO리그 세 경기를 대상으로 한 야구토토 스페셜 59회차 게임의 투표율을 중간 집계한 결과, 전체 참가자의 48.86%는 SK-LG전(2경기)에서 홈팀 SK의 승리를 내다봤다. 원정팀 LG 승리 예상은 38.03%에 그쳤고, 나머지 13.13%는 점수대를 점쳤다. 최종 점수대로는 SK 2~3점-LG 0~1점 예상(6.86%)이 1순위를 달렸다.

두산-넥센전(1경기)에선 원정팀 넥센 승리 예상(43.90%)이 홈팀 두산 승리 예상(41.25%)을 약간 앞섰다. 나머지 14.87%는 같은 점수대를 택했다. 최종 점수대의 경우 두산 4~5점-넥센 8~9점 예상(7.63%)이 가장 많았다. kt-삼성전(3경기)에선 원정팀 삼성 승리 예상(47.34%)이 홈팀 kt 승리 예상(37.47%)과 같은 점수대 예상(15.20%)을 압도했다. 최종 점수대로는 kt 2~3점-삼성 4~5점 예상(4.59%)이 최다였다. 12일 오후 6시20분 발매 마감된다.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축구팬 52% "1위 전북, 제주 원정 승리"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인 케이토토(www.ktoto.co.kr)가 12일 열리는 K리그 클래식 세 경기를 대상으로 한 축구토토 스페셜 30회차 게임의 투표율을 중간 집계한 결과, 전체 참가자의 52.38%는 제주-전북전(3경기)에서 원정팀 전북의 승리를 전망했다. 홈팀 제주 승리 예상은 22.30%에 그쳤고, 나머지 25.29%는 무승부를 예측했다. 최종 스코어에선 1-2 전북 승리 예상(13.55%)이 최다였고, 2-2 무승부 예상(9.92%)과 1-3 전북 승리 예상(9.89%)이 그 뒤를 이었다.

서울-포항전(1경기)에선 홈팀 서울 승리 예상(41.87%)이 원정팀 포항 승리 예상(27.29%)을 크게 앞섰다. 무승부 예상도 30.85%로 나타났다. 최종 스코어에선 1-1 무승부 예상(14.96%)이 1순위였고, 2-1 서울 승리 예상(14.16%)과 1-2 포항 승리 예상(10.80%)이 그 뒤를 이었다. 대구-울산전(2경기)에선 원정팀 울산 승리 예상(54.17%)이 홈팀 대구 승리 예상(18.75%)을 압도했다. 27.06%는 무승부를 택했다. 최종 스코어에선 1-2 울산 승리 예상(15.04%)이 가장 많았다. 12일 오후 7시20분 발매 마감된다.